

10년째 무사고 법회... '금강신심' 자랑

전철 구로사무소법우회 16일 창립 10돌

회원 70명...회보 내고 매월 사찰순례 양로원·고아원 위문 보살행도 모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하지만 그 긴 세월동안 한결같이 매달 한차례씩 법회를 계속해온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가 16일 구로동 관운포교일(원장 일명)에서 창립 10돌 기념법회를 가졌다.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철도청 수도권 전철을 운전하는 불자 기관사들의 신행단체로 그동안 매달 셋째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마지막 주 화요일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을 순례하는 순례법회를 통해 신심을 키워왔다. 또한 매년 10월에

는 1박2일로 성지순례를 가져 철원심원사, 진안마이산 탐사, 두타산 삼화사 등 그동안 참배하지 않은 성지가 없을 정도다.

법우회는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복지관,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 대승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구로복지관에서 반찬나르기, 김장담그기, 장애인들이 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관내 20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주위의 칭찬이 대단하다. 지난 5월에는 시흥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을 방문해 할

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욕 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 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법우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5년전 성북승무사무소가 생기면서 법우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회원 절반이 성북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활발했던 법우회도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고 회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그래서 법우회 회지 '성불'을 만들어 기관사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등 남아있는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회원도 70여명으로 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법우회장 박창식씨는 "10년동안 열심히 활동해 왔듯이 앞으로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구로 승무사무소법우회는 지난 5월 혜명양로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목욕시켜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회원들의 다짐"이라며 "구로 역사가 확장되면 조그마한 법당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법우회의 최대 소망"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한수갑
(서울유우 영입5 본부장)

"어제는 업종생(業眾生) 오늘은 행보살(行菩薩) 내일은 원성불(願成佛)."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유전(流轉)하는 고해에 태어나 자기의 근본자리를 찾지 못한 채 네 마리의 뱀 실체를 한 몸애 안고 다섯 가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 네 마리의 뱀이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욕신을 말하고 오욕락(五欲樂)은 재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등 다섯가지를 일컫는다.

지금 우리 인간은 대우주의 섭리하에 그 생성(알파)과 종말(오메가)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의 이치를 문(問) 사(思) 수(修) 하다가 사라져간다. 인간은 무한한 우주 가운데 풍요로운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면서 국가, 민족, 정치, 과학 계

의 전국 영업부에서 91, 92, 93년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유우 전 판매원과 함께 어제의 중생업을 참회하고 영업현장을 정확히 판단, 대응책을 강구하고 내일의 보리를 증득하는 영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하루하루 용맹진전 하였기에 가능했다.

그 후 나는 부처님 믿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특히 모든 중생들



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고객을 만나다 보니 고객은 어느새 나에게 소중한 부처님

"하심하니 고객들도 마음 열어"

기만 한다.

지금으로부터 28년전(1973년) 나는 서울유우 공채 1기생으로 입사, 서울유우 협동조합을 서울유우 주식회사로 착각하여 근무하다가 직장의 쓴맛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합동조합 특성상 선출직 임기제 조합장은 있어도 평생을 사고라 할 사장이 없었기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승진'에 있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상식을 초월한 간부직 승진이 있을 때마다 오장육부를 뒤엎게 만들었고 왕성한 식욕도 수면욕도 나 떨어졌다. 이것 또한 불자라면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과보고 생각해야 하지만 아직 중생이라 괴롭기만 했다.

평에도 부귀도 편안함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일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진 않았을 텐데...

90년대 초 경남 마산에서 서울유우 지역 총괄 지점장으로 재임이던 그 때 불자들의 지극한 호응으로 서울유우 협동조합 사상 전대미문

이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공경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다 보니 그들 또한 마음을 열고 나를 대하는 것 같았다.

이같은 인연으로 서울로 전출 온 뒤 봉은사와 능인선원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부처님의 법을 알면 일수록 이렇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98년 2월 조계종 포교사가 되었다. 평소 사찰을 참배할 때 누군가 사찰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나는 포교사단 사찰안내에 가입하고 부처님 전에, 살아생전에 백민명에게 사찰을 안내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못하지만 요즘도 직장생활 틈틈이 어떻게 하면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불교도가 아니고 무엇이라.

불교도 건설의 그 날까지 불교를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

"종교·당론 맞설맨 결정 미루겠어요"

16대 국회의원 84명 조사

국회의원들은 종교가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자국회의원들은 정당 결정과 종교적 신념이 상충되었을 때 다른 종교인과 달리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과 종교'를 주제로 종교를 가진 16대 국회의원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4명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의정활동과정에,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개신교 82%, 가톨릭 93.3%인데 비해 불교는 61.6%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정당의 결정과 종교적 신념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개신교 46%, 가톨릭 60%가 있다고 한 반면 불교는 15.4%만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과 정당의 결정이 상충할 경우 어떤 입장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 가톨릭 각각

33.3%가 정당결정에, 38.1%, 55.6%가 종교적 신념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불교는 100%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개신교와 가톨릭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낙태반대, 생명복제 금지, 일요일에 각종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있어서 당론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16대국회의원들의 기록카드를 분석한 결과, 종교를 가진 의원은 전체 72.1%인 207명으로 개신교 107명, 가톨릭 69명, 불교 30명, 성공회 1명, 무교 68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불자국회의원은 한나라 26명, 민주당 13명, 자민련 3명인 것으로 각 당은 파악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SBS법우회 증서스님 법문

SBS법우회(회장 허원재)는 2일 여의도 불교문화회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증서스님이 "마음은 곧 당신의 종교다"는 주제로 설법했다.

교사불자련 하계수련

전국교사불자련 서울·경인지부는 11~13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 80여명의 교사불자들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임제식을 비롯해 초발심자를 위한 기초교리 강의, 참선실수, 산내암자순례 등도 진행됐다. 또한 마지막날에는 강원지부 참람법회도 가졌다.

심우회 신병교육대 위문

심우회(회장 이춘심)는 20일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위문한다. 심우회는 이날 합장주를 비롯해 빵, 떡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낙산사 흥련암을 참배할 계획이다. 출발은 20일 오전 6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LG주유소 앞. (02)575-2525 채희주

정부기관불자회 연합법회

농림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불자회는 16일 오후 6시 10분 과천종합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송광사 청운스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참선"을 주제로 설법할 이번 법회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클릭! 새 홈페이지

■ 회계사 불교 청년회 (<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hwabul>) -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부에 소속된 회계사 청년회의 홈. 젊은 불자들이 모여 다양한 불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21세기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작은선방 (<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dowoon>) - 8월6일 개설. 작은선방 도운선원은 불교교리 공부와 더불어 수행을 행하는 곳.

■ 무소유 (<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greenfield>) - 8월5일 개설.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면서 불교수행에 매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rgang@buddhapia.com



◇지난 7일 경희의료원 본관 입구 안내 데스크. 한 자원봉사자가 방문자들에게 병원 안내를 하고 있다.

의료파업 영향 자원봉사자 줄어

경희의료원 법당 못열어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경희의료원 법당 개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6일중순경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불자인 점과 병원 내 법당이 없는 현실을 감안, 임시법당을 개설키로 했으나 최근 자원봉사자가 급감하자 병원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경희의료원 노조가 파업하자 환자식 배달 및 환자식기 세척, 청소,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해 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에 경희의료원은 임시법당을 8월 16일까지 오픈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파업당시 월 60여명이던 자원봉사자가 8월 들어 20여명으로 줄어들자 병원측은 하루 한 두명을 위해 4인 병실 크기의 법당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희의료원 불자회 총무 권혁운씨는 "병원측과 협의를 통해 불자를 상대로 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를 제작, 서울시내 사찰에 배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원봉사자는 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02)953-8113 김두식 기자

법화종 총무원 주최 도라전망대 평화의 종 회향대법회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광복의 8 을 맞아 세계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라전망대 「평화의 종」 불사 회향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일 시 : 법기55년(2544) 8월 22일(음 7월 23일) 1시
- 장 소 : 도라전망대 (임진각 주차장 오전 11시까지 도착)
- ◆ 연락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73호(법화종 총무원)
TEL 02)762-2678, 764-2678
FAX 02)747-5044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박법홍 합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약용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아기 임피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매달되는 증상에 (○) 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유종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뱃살이 쪼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빈번히 실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당으로 고통을 당한다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제 여성 권익의지는 물론 즉시 전의뢰세요